

무안중·현경중, '향토사 교육'으로 애향심 고취

무안교육청 주최·무안문화원 주관 '찾아가는 무안 향토사' '무안 역사 문화 연대표 만들기' 등 3가지 프로그램 구성

무안교육지원청은 관내 중학교 두 곳에서 "찾아가는 무안 향토사 교육(이하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현경중은 지난 7월 13일과 14일에 무안중 학교는 7월 20일과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안 향토사 교육"(이하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무안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무안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향토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무안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애향심을 기르게 되었다.

이번 "향토사 교육"은 '무안 역사 문화 연대표 만들기', '각설이 품바로 세상 읽기', '초의차 마시며 마음 여행' 등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체계적인 이론을 배우고 체험학습을 통해 무안 지역의 향토사를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

'무안 역사 문화 연대표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박관서 시인은 무안의 역사와 한국사, 세계사를 함께 조망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각설이 품바로 세상 읽기' 프로그램은 이중환 각설이 선생의 다도 문화를 정립한 초의선사의 고장인 무안에서, 무안중과 현경중의 학생들에게 다도를 통한 명상과 이를 삶 속에서 활용하는 법을 전수하게 되어 기쁘다.

'초의차 마시며 마음 여행' 프로그램은 조찬희 전남심리상담센터 연구소장이 진행했는데, "우리나라의 다도 문화를 정립한 초의선사의 고장인 무안에서, 무안중과 현경중의 학생들에게 다도를 통한 명상과 이를 삶 속에서 활용하는 법을 전수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다도와 명상과 함께 자아를 찾아가는 심리 검사도 진행하는 등 알찬 시간을 가졌다.



무안중의 김금성(1년)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무안의 역사를 이해하는 연대표를 만들어가면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고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재미있게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무안중의 이대환 사회과 교사는 "요즘 학생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대해 무관심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무안교육지원청과 무안문화원의 도움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라는 말도 될 것이다."며 "학생들이 내 고향 무안의 인물, 문화, 예술에 대해 알아보고 애향심을 기르게 되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대학교, '에티오피아 아르시 대학 교수진 대상' 낙농 기술 초청 연수 실시

순천대학교가 에티오피아 현지 대학교수와 기술진을 초청하여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순천대학교 캠퍼스와 인근 낙농 관련 기관에서 기술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총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낙농 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내 선진 낙농 기술을 전수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에티오피아 지역의 기아 문제 해결 및 농가 소득향상을 목표로 한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축산업 종사자를 보유한 국가로, 전체 GDP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9%이며 노동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한다. 특히 소와 양, 염소를 포함하는 반추 가족이 가장 많이 사육되며, 이들이 생산하는 우유와 가공품인 버터, 치즈 등이 주요 생산품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축산업의 탄탄한 산업 배경에도 불구하고 축산 인프라 구조와 종사자 인식 부족, 질병에 의존하는 사육 방식, 낮은 마리당 우유 생산량 등의 문제로 실제 낙농 농가의 수익은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ODA 사업을 통해 순천대 교수진을 포함 국내 파견 전문가들이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개량, 번식, 사양관리, 질병 및 위생관리, 우유 품질 관리, 조치 6개 주요 분야에 대해 입문 과정과 고급 과정으로 나누어 현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진은 국내 농·축산업 대표 기관인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에 더해 최근 젖소 개량을 추진 중인 농협경제지주 젖소개량사업소와 서울우유협동조합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보흥영농조합법인(대표 김용광)의 도움을 받아 순천 인근 보성과 고흥 지역의 젖소·한우 농가 방문과 지역 문화탐방 등을 계획 중이다.

사업 책임자인 순천대 동물자원과학과 서강석 교수는 "공립농업학교에서 출발한 우리 순천대학교는 농업 분야와 축산 분야에 있어 국내 선도적인 연구와 산학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으로, 그동안 쌓아온 많은 기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번 초청 연수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축산업 발전을 돕고, 선진 농도(農道) 전남의 이미지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영광Wee센터, 여름방학 초·중학생 프로그램 운영

영광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2일부터 모와 자녀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초·중학생 10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탐구하고 문화를 체험하며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행사의 전 과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함께 빛나는 우리 마음'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흙을 사용하여 도자기를 만들고 나무를 사용한 플레이팅 보드를 만드는 시간을 통해 부모에게는 자녀와 함께하는 기쁨을 향유하고 자녀에게는 스스로 공예품을 만들어 내어 자기 효능감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서희권기자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꿈키움캠퍼스' 여름 계절학기 운영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도내 일반고 학생 391명 참가

전남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과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교-대학 연계 공동교육과정인 '꿈키움캠퍼스' 여름 계절학기를 운영한다.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번 꿈키움캠퍼스에는 전남대·조선대·목포대·광주교대·조성대·청암대 등 광주·전남 지역 6개 대학과 서울권의 한국외대가 참여해 도내 일반고 학생 391명을 대상으로 총 24강좌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캠퍼스에는 합숙형 실기집중과정이 크게 늘어 14강좌 234명의 학생들이 3박 4일 또는 4박 5일 간 체육과 진로탐구, 간호의 기초, 항공기 일반, 생명과학 실험 등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강좌를 경험하게 된다.

지리산생태탐방원과 함께 개설한 지역특화 공동교육과정 '생태와 환경'도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구례고를 거점학교로 개설된 이 과정에는 지리산생태탐방원의 전문가가 참여해 생태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강의하고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김재환기자

보성교육청,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자아자' 캠프 운영

아빠-자녀 간 소통의 장 마련

보성교육지원청이 지난 22일, 23일 이틀간 관내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12팀 25명을 대상으로 2022년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자아자' 캠프를 운영했다.

'아자아자' 캠프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자리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 이후 10회째 진행되고 있는 부모-자녀 캠프이다. 보성교육지원청은 캠프를 통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웠던 가정을 위하여, 활발한 소통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보성=김택순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